

11.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사용이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선을 반듯이 그어라.
- ② 눈을 감고 분노를 삭였다.
- ③ 너 왜 그렇게 내 속을 씩히느냐?
- ④ 사우나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 있었다.

12.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?

- ① 먹을 만큼 떨어져 집에 갈거야.
- ② 이게 얼마만인가?
- ③ 저 도서관만큼 크게 지으시오.
- ④ 제 27대 국회의원

13. 다음 중 문장의 짜임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?

- ① 그 일은 하기가 쉽지 않다.
- ② 봄이 오면 꽃이 핀다.
- ③ 철수는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.
- ④ 우리는 인간이 존귀하다고 믿는다.

14. 다음 괄호 안에 병기된 한자 중에 ‘地’자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김 주사는 심지(心地)가 고운 사람이다.
- ② ‘입추의 여지(餘地)가 없다.’라는 말은 가을과 상관없다.
- ③ 황룡사지는 절터라기보다는 궁지(宮地)라는 주장이 있다.
- ④ 풍년으로 산지(產地)의 쌀값이 전년보다 6% 정도 떨어졌다.

15. 다음 중 ‘불법(佛法)에 귀의한 사람들’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는?

- ① 匹未匹婦 ② 樵童汲婦
- ③ 夫唱婦隨 ④ 善男善女

16.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문학관이나 작가의 유적과 그 소재지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?

- ① 종로구의 윤동주 문학관
- ② 용산구의 황순원 문학관
- ③ 성북구의 만해 한용운 심우장
- ④ 도봉구의 김수영 문학관

17. 다음의 밑줄 친 부분은 두 개의 낱말로 구성되어 있다. 각각의 낱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 이상을 지녔다고 볼 수 없는 것은?

- ① 남이 말하는데 결다리 들지 마!
- ② 길눈이 밝아서 어디든 잘 찾아 간다.
- ③ 그간의 노력으로 회사의 틀을 잡아 놓았다고 볼 수 있다.
- ④ 청년의 입에 거품이 일고 네 활개가 뒤틀리고 있었다.

18. 다음 글에서 말하는 ‘이 작품’은?

그가 창씨개명계를 제출한 것은 이 작품을 쓴 지 닷새 만이다. 일본 유학을 결정하고 그걸 위해선 자신의 손으로 창씨개명계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각오했을 때, 그 뼈아픈 욕됨으로 인해 쓰여진 것이 곧 이 작품이라는 주장이다. 이 시는 오랫동안 역사 의식이 내포된 자기 성찰의 시라는 정도의 일반적인 평가를 받아왔다. 그러나 그의 시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현실에 의거하고 있는 강력한 저항시가 바로 이 시이다.

- ①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다. / 세상은 가도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. /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/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/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.
- ②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/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. //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/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서다. //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/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.
- ③ 풀이 눕는다. /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/ 풀은 눕고 / 드디어 울었다. /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/ 다시 누웠다. // 풀이 눕는다. /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. /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/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.
- ④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/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/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. //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. / -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.

19. 다음 고전시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내 님물 그리스와 우니다니
산(山) 접동새 난 이숫흐요이다.
아니시며 거츠르신들 아으
잔월효성(殘月曉星)이 아르시리이다.
넉시라도 님은 흐디 녀저라 아으
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
과(過)도 허물도 천만(千萬) 업소이다.
돌히마리신더
술웃븐더 아으
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.
아소 님하,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.

- 정서, ‘정과정’ -

- ① 현재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을 담고 있다.
- ②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담담한 마음을 담고 있다.
- ③ 다가올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심경을 담고 있다.
- ④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서 삶의 교훈을 담고 있다.

20.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맞춤법이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그는 밥을 몇 순가락 뜨다가 밥상을 물렸다.
- ② 이번 수해로 우리 마을은 적잖은 피해를 봤다.
- ③ 집은 허름하지만 아까 본 집보다 가격이 만만찮다.
- ④ 그는 끝까지 그 일을 말끔케 처리하였다.